

Habermas의 비판이론에 기초한 미래 사회 변혁을 이끄는 가정교육학의 실천 방향 탐색

유태명* · 주수언** · 양지선***)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동국대학교(경주) 가정교육과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Direction of Praxi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Future Society Drawn from the Habermas's Critical Theory

Yoo, Taemyung* · Ju, Sueun** · Yang, Ji Sun***)

*Professor,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Gyeongju)***

*Lecture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specting view of future society from a critical perspective,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at can lead to transformation of future society from Habermas's critical theory. For this, Habermas's critical theory was understood, and the direction was explored in which field should act to guide future society when home economics education took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Direction for praxi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as explored in both lifeworld and system area of society based on the critical theory that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are mutually beneficial and continue through interactions. The praxi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from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has been found through examples of IFHE's advocacy and policy participation activities. In conclusion, it supported the reason that home economics education as a critical science should form a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s well as lifeworld with valued human conditions and practice professional activities in academic, daily life and societal areas which will lead to the critical and participatory changes in individual and family life.

Key words: 비판이론(critical theory), 생활세계와 체계(lifeworld and system), 변혁(transformation), 미래 사회(future society), 가정교육학(home economics education)

1) 교신저자: Yang, Ji sun,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Republic of Korea
Tel: 02-2377-2118, E-mail: oliveroo@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For 15 years, I taught consumer studies and consumer policy from a right, entitlement perspective ... I did not challenge the status quo from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 I had not embraced the critical science approach at that time. I was in the expert mode ... In the late 90s, many things happened in my life that led me down another path, away from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approach. I began to envision a different future for the role of family and consumer scientists in the consumer policy arena. Exposure to the peace and social justice literature, citizenship, global education, human rights and human responsibility literature changed me profoundly ... I have totally shifted my focus, from rights to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Excerpts from McGregor(2004)

McGregor(2004)는 기존에 자신이 취해왔던 관점과 다른 새로운 관점의 문헌을 접하게 되면서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소비자 권리 관점에서 소비자 책임과 책무 관점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비판과학 접근을 통해 전달적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으로 전환한 경험을 자신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밝히고,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비판과학 접근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개인이 관점을 갖게 되는 배경은 개인적인 교육 경험 및 실무 경험에 기초하고 같은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의 철학을 형성하고 공유해온 결과로 긴 시간을 거쳐 형성되기 때문에 McGregor와 같이 실제로 관점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발췌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의 전문활동 사례를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글로 공유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관점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식을 깨워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가정학과 가정교육학²⁾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양한 관점에 근거하여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말 화학 전공자였던 Ellen Richards는 인간생태학 관점에서 가정학을 인간생태학으로 제창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실생활에서 자연 과학을 적용하는 응용과학 관점을 취하였다. 1961년 개최되었던 French Lick Seminar에서는 학문 중심 관점에서 가정학의 하위 영역별 개념체계를 개발하였고, 1975년 미국 가정학회가 발표한 New Direction II는 대표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인간생태학 관점에서 개발되었다. 1979년 미국 가정학회에서 Brown과 Paolucci에 의뢰해 작성한 *Home Economics: A definition*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인간과 사회 환경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가 중대해지면서 Habermas의 비판이론에서 제시된 비판과학 관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러 관점들은 시대에 따라 호응을 받는 관점으로 변화해왔지만 서로 경쟁하면서도 공존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교육과정 개발 동향의 저변에는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조망, 교육과정 개발의 근간이 되는 이론, 개별 교과와 학문적 발달 방향 등이 영향을 준다.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이상적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교과와 목표, 교육내용 구성 원리와 방법,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사례로 Lee, Kwak, Lee와 Choi(2012)의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조망하고 변화 예측에 따라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점이 무엇이며, 미래 교육의 비전을 무엇으로 상정하느냐의 논리로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곧 미래 사회의 변화 추세를 지켜보고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비판과학 관점을 취할 경우 미래 사회를 단지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능한 다양한 방향으로의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선호하는 미래 사회로 이끄는 데 역점을 두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과학 관점에 근거하여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점이나 미래 교육의 비전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어떤 관점을 갖느냐는 가정교육학의 방

2) 본 논문에서는 가정학, 가정교육학, 가정교육의 용어를 문장의 맥락에 맞게 사용하였다. 가정학은 가족학, 의류학, 영양학, 주거학, 가정경영학 등을 통칭하는 모호문을 뜻하는 용어로, 가정교육학은 초·중·등의 가정교육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가정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을 통칭하는 학문분야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또한 맥락에 따라 가정학과 가정교육학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향을 좌우하게 되고 그 방향에 따라 학습자, 가족, 사회의 안녕에 기여하는 바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교육학이 학문적 성과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인, 가족, 사회, 문화 등에 어떻게 실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론이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Brown과 Paolucci(1979)는 가정학의 사명을 사회적 기관으로서 가족으로 하여금 세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다. 사명 진술문에서의 세 행동체계 개념의 도입은 Habermas(1971)의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에서 지식을 유도하는 인간의 세 가지 인지적 관심이 각각 세 행동체계를 촉진한다고 본 비판이론을 근거로 한 바 있다. 이후 Baldwin(1995)과 McGregor(2004)는 가정학 전문가들의 변혁적 전문활동을 주장하였다. Vincenti(2016)는 미래방향으로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교육학을 옹호하였고, 한국에서 비판과학 관점의 실천적 추론 과정과 세 행동체계가 2015 개정 가정과 국가 교육과정에 도입된 것에 고무되어 한국 가정교육학자에게 축하를 보낸 바 있다.

이와 같이 Habermas의 비판이론을 기초로 세 행동체계의 구축과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가정학의 정의, 가정교육학 전문분야 종사자들의 전문활동과 실천,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 교육 과정에 대한 지지와 광범위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비판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Yoo와 Lee(2014)는 우리나라의 가정교육학 분야에서 비판과학 관련 연구는 크게 비판과학 관련 철학과 이론에 대한 이해, 세 행동체계,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및 실천적 추론 수업으로 범주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술과학 패러다임이 단지 기술적 방법에 국한된 것으로 보거나 해석과학 패러다임에서 이해의 개념을 단지 개념의 이해로 보는 것과 같이 비판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육학 실천의 미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관점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비판과학 관점의 이론적 기초인 비판이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교육학은 어떤 실천의 장에서 미래 사회의 변혁을 주도해 나아가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탐색해보고

자 한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가정교육학에서의 비판과학 관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더불어 비판과학 관점에 기반한 가정교육학 전공자들의 실천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내용

첫째,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본다.

둘째,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교육학 실천과 관련 있는 비판이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교육학은 어떤 장에서 어떤 실천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탐색한다.

II.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

1. Megatrend와 Countertrend로 바라보는 미래 사회

미래학자들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조망하는 데 있어 있음직한 미래(the probable/predictable futures), 있을 수 있는 미래(the possible futures), 선호하는 미래(the preferred futures)의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였다(Pendergast, McGregor, & Tukki, 2012).

‘있음직한 즉 예견되는 미래(probable/predictable futures)’는 우리 사회의 변화 추세로 보아 당연히 출현할 수밖에 없으리라 고 전망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사회 현상, 정책, 구성원의 가치, 과학기술의 발달, 세계동향 등을 고려할 때 전망하고 예견할 수 있는 미래이다.

‘있을 수 있는 미래(possible futures)’는 가꾸고 키워나간다면 가능한 사회이다. 가능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가치, 판단과 행동이므로 어떤 가능성으로 키워나갈 것인가의 논의로 탐색해 볼 수 있는 미래이다. 이런 논의가 없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미래이다.

‘선호하는 즉 바라는 미래(preferable futures)’는 우리의 신념과 소망으로 연유되는 미래 사회상이다. ‘선호하는 즉 바라는 미래(preferable)’는 최선의 미래 방향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최선의 행동으로 변화를 이끄는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교육학에서 실천학문적 성격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미래 사회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현실 변화의 추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현재 변화의 추세가 미래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있을직한 즉 예견되는 미래(probable/predictable future)’를 조망하는 것이 메가트렌드라면, 카운터트렌드는 다른 방향의 미래도 있다는 관점으로 다른 시각에서 메가트렌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있을 수 있는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가 바로 나머지 두 가지 다른 미래로 가정교육학이 미래 사회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각을 돌려야 할 미래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는 미래 사회변화를 주류적 입장을 취하기보다 좀 더 비판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회인지와 바라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숙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가정교육학은 어떤 모습의 미래 사회를 비전으로 하며(envisioning) 어떤 미래 사회로 자리매김(positioning)할 것인가? <Table 1>은 Anderson, Kruse, Persson, Mogensen과 Eriksen(2006)이 예측한 미래 사회변화의 대표적인 메가트렌드와 이에 대응하여 McGregor(2012)가 제시한 카운터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예측되는 미래 사회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과 선호라는 정형성에 기초하여 미래 사회의

변혁을 주도해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의 장을 마련해 준다.

McGregor(2012)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지배적인 추세를 주입하는 것에 저항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Anderson 외(2006)가 제시한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카운터트렌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 고령화(aging)로 인해 과거 세대보다 더 오래 살고 있고 더 건강해졌지만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전 세대에 HIV/AIDS와 같은 질병으로 고령에 이르지 못하고(no chance to age)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더 높은 사망률, 더 짧은 기대수명,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고아와 같은 청소년 인구는 세계적인 노화 추세에 역행하는 추세이다. 고령이나 노화의 합병증으로 죽는 것은 노년기에 접어들기 훨씬 이전에 죽는 것과는 다를 수 없다는 맥락이 중요하다.
- 상향식 지역화(loc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는 기업의 하향식 세계화 모델이 가져오는 극심한 빈곤, 불공정,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화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조직을 희생시키는 초국가적 기업(TNC)의 세계화보다는 지역과 시민, 환경에 초점을 맞춘 대안적인 접근 방식이다. 시민사회단체(NGO)의 급격한 확산으로 시민사회는 종종 다른 인종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국제 금융 기관의 개혁과 부채 탕감, 노동자의 인권 향상, 생태학적 기준을 원하는 상향식 운동으로 세계화에 관여하고 있다.

Table 1. Megatrends & Countertrends of future society

Megatrends (Anderson et al., 2006)	Countertrends (McGregor, 2012)
Aging	No Chance to age
Globalization(top down)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bottom up)
Technological development	Focal versus techno
Prosperity(GDP)	Redefining prosperity(GPI)
Individualization	The commons
Commercialization(scarcity mentality)	Abundance mentality
Health and environment	Human needs
Acceleration	Deceleration
Network organization	Kinship network
Urbanization	Conterurbanization and ruralization

- 산업시대의 도래로 인한 기술적 진보(technological development)는 노동력을 향상시키고 가정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주었다. Borgmann(2000)은 산업혁명 이전 사람들은 힘든 노동력으로 가족을 부양하였지만 생존을 위해 지역사회에 의지하였던 것을 가정, 가족,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것(focal thing)과 실천(practice)이라고 하였다. 그는 기술적 패러다임은 초점의 상실로 이어져 가족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하였기에 가정의 테이블 문화, 세계 문화, 예술, 체육(운동), 철학 문화를 통해 주위 세계에 참여하는 삶을 강조한다. 기술적 진보의 불가항력에 대응하여 사회적 기관으로서 가족의 활력과 생존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 Anderson 외(2006)는 번영(prosperity)을 Gross National Product(GNP)로 측정되는 경제성장률과 동일시하여 인간의 번영과 같다고 보았으나 성장(growth)은 진보(progress)나 번영(prosperity)과 같지 않다. 번영을 재정의(redefining prosperity)한 카운터트렌드는 GNP 보다는 Genuine Progress Indicator(GPI)의 개념에 주목한다. GPI는 소비 지출, 가사노동과 육아, 자원봉사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범죄, 환경 오염, 자원고갈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까지 포함하여 가계,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의 생명유지 기능에 가치를 부여한다.
-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사회 규범에서부터 개인으로의 전환(shift)이며 삶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행할 때나 다른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법으로 따르는 규율이 약해지거나 손실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10대 청소년에서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는 생애 전환(life transitions)을 안내하는 명확한 지침과 예측가능한 사회적 기대가 사라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만나고 행동의 의미를 부여받는 집단 공공재(collective commons)를 육성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움직임을 포함하여 공공재 운동을 위한 힘을 이끌어냄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상적으로 공유하고 즐기는 환경, 문화와 같은 공공재에서 소외되는 개인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다.
- 상업화(commercialization)는 민간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이 개념에는 희소성의 경제 개념과 글로벌 시장에서 결핍의 사고방식(scarcity mentality)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여 Covey(1989)가 강조한 풍요로운 사고방식(abundance mentality)은 모두를 위한 충분한 가능성, 선택권, 대안, 창의성을 열어준다. 인간의 상호작용은 신뢰, 무결성, 성숙에 의해 예측되는데 상호이익이 되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문제 제기과 해결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 자신을 기꺼이 투자하려고 한다. 잠재력과 기회를 위한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이러한 입장에서 상업화는 각각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 Anderson 외(2006)는 건강과 환경(health & environment)에 대하여 체력과 건강 관리, 나이와 생활습관 관련 질병, 건강 관련 전염병의 징후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신 및 성격에 대한 최적화를 언급하였다. 개인의 건강(health), 웰빙(well-being), 건강 관리(wellness)에 영향을 미치는 가까운 환경과 먼 환경에 대한 능력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욕구(human needs)는 유기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며 욕구는 식품, 물, 주거와 같이 객관적이거나 심리(소속감)와 같이 주관적일 수 있다. 환경조건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건강 관리능력은 저하되어 건강을 만드는 과정과 현재 상태가 손상될 수 있다. 건강과 환경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생존, 보호, 애정, 이해, 참여, 게으름, 창조, 정체성 및 자유)를 포함시키는 웰빙과 건강 관리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 Anderson 외(2006)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세계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려는 경향을 상쇄하기 위해 변화 지향적(change-oriented)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첫 번째 선택은 이러한 가속화(acceleration)를 추세로 받아들이고, 삶의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부분으로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을 수용하는 변화 지향적인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은 변화의 속도에 대처하는 감속화(deceleration) 운동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슬로우 운동(slow movement)의 주요 전제는 변화의 속도와 상관없이 인정, 소속, 친밀, 사랑, 돌봄을 위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가속을 다루기 위해서 가족들이 변화 지향적이 되는 동시에 느림의 철학을 가르침으로

써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세계를 하나로 조직하고 연결하는 IT 기술 관련 네트워크 구성(network organizing)의 강력한 반작용은 가족 및 확장된 친족 네트워크(kinship network)의 손실 또는 위협이다. 친족 네트워크를 통해 매개되는 부모 또는 결혼(부모-자녀, 부부, 형제, 대가족)과 같이 구성된 가족 기반 관계는 기술의 확장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친구 및 이웃도 포함되는(Sarker, Keya, & Panday, 2006) 다른 추세가 나타난다. 세계화, 미디어 및 네트워크가 친족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 간 친족 네트워크에 미치는 변화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가족 역학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실천 방식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 도시화(urbanization)는 전 지구적 변화의 결과로 도시 지역의 물리적 성장으로 정의된다.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거의 60%가 도시 지역에 살 것이라고 도시화의 엄청난 추세에 대해 예측한다(United Nations HABITAT, 2008). 도시가 농촌 지역으로 인구를 잃을 때 나타나는 비도시화(counter urbanization)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이다. 개인과 가족을 위한 농촌과 도시 생활의 복잡성은 빈곤, 재화와 서비스의 형평성과 기회, 성별 차이, 노령화, 건강 관리, 기술 등 문제는 동일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도시화와 비도시화의 양쪽 주거 현실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McGregor(2012)는 다른 이들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21세기 메가트렌드에 대한 가족에서 영감을 주는 해석을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카운터트렌드를 파악하고 가족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인류를 위해 가정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추세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의 관점을 가져야 함을 촉구하였다.

2. Megatrend와 Countertrend 관점의 미래 사회 조망에 따른 미래 교육 방향의 모색

최근 교육학계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구상할 때 미래 사회에 다가올 변화의 큰 흐름, 즉 메가트렌드를 조망해 미래 교육(한

경)에 대한 변화 요구를 예측해보고, 그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파악하여, 미래 교육과정의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 방향이 정해지면 미래 교육과정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팽배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정(assumption)에 기반한다.

Korea Development Institute(2014)는 미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미래연구를 통해 비선형성(non-linearity)나 복잡성(complexity)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슈들을 파악하여 임의적인 의사결정을 줄이는 시스템적 접근은 구조적인 투명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래의 결과에 대한 불예측성(unpredictability)의 증대는 열린 미래에서 활동해나갈 개별적인 행위자의 숫자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 잡힌 미래의 전망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어떤 기대를 전제로 한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전제가 되는 미래의 변화는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행위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미래는 다시 이러한 행위에 의해 결정되기에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탐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미래 교육과정 구상의 흐름은 급격하게 변화할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미래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들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의 변화로 이어져 교육과정의 비전에 대한 구상에 바탕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사고의 흐름은 미래 사회의 조망이라는 거대한 메가트렌드가 교육과정 비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의 메가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는 매우 활발히 수행되었다.

한국 사회의 미래 예측과 교육의 대응전략 모색에 관한 연구(Park, Park, Kim, Kim, & Kim, 2007)에서는 인구 구성의 변화, 글로벌화, 첨단 기술의 발달,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교육에 있어서 학습공간의 다원화, 지식정보기기의 활용과 선발, 평가의 다양화, 지적 능력 보강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개별교육, e-teacher와 사이버 학습, 다음 직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교육의 변화, 보이지 않는 대학, 증가하는 교육유목민을 들고 있다. Chang, Han, Lee와 Seo(2011)는 2030 미래의 직업 생활 연구에서 사회·문화 영역, 정치·제도 영역, 자원·환경 영역, 경제·산업 영역, 과학·기술 영역에서

의 메가트렌드를 전망하였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다인종, 다문화사회 도래, 양극화 및 갈등의 다양화, 다양한 가족 형태 출현, 가치관, 생활방식의 변화, 정치·제도 영역에서는 국가와 정치의 시장화·기업화, 시민의 정치·행정과정의 참여 증대, 북한 문제의 국내화·내부화, 자원·환경 영역에서는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경제·산업 영역에서는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산업 구조의 딜레마, 사회보장·복지 시스템의 위기, 과학·기술영역에서는 기술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초래, 기후변화, 자원·에너지 부족 등 지속가능 성장의 문제 심화, 사회·경제적 쟁점의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수요 증대를 전망하였다. 이처럼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회인구(인구 및 이동성 증가, 노령화, 도시화), 기술(정보통신망 확대, 빅데이터 시대 생명공학, 의료기술 발달, 기대수명 연장, 제조자동화), 환경(기후변화, 물 부족, 식량 위기, 에너지수급 양상 변화), 정치(세계 권력의 다극화, 비국가 단위로의 권력 이동, 새로운 안보위협 등장), 경제(글로벌화, 개발도상국 성장, 지식 기반 경제 심화)의 메가트렌드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평생교육, 학생특성 중심의 개별화 교육, 사이버 학습, 정보윤리 교육, 직업역량 교육(전문화·특성화 교육), 세계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 통합교과 교육, 인성 교육, 친환경 교육, 경험 중심 교육 등의 혁신적인 지식과 새로운 학습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교육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메가트렌드에 기초하여 교육의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은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는 있어도 미래 사회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부족이다.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메가트렌드와 다른 방향으로의 카운터트렌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적 인간상의 상정으로부터, 교육의 비전, 목적, 철학으로부터, 이상적인 사회상으로부터 등의 시작점에서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미래 사회의 메가트렌드나 카운터트렌드 중에서 한 방향으로부터 교육의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양방향에서의 추론을 거듭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비판과학 관점에서 가정교육학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Ⅲ.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비판이론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방향성, 준거,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생각하고 길을 찾으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Kuhn(1996)은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딜레마는 탐구 패러다임에 의해서 아주 분명한 문제로 변형되고 관점을 비평의 근거로 제공함으로써 제기된 문제를 적절하게 비평할 수 있게 하며 가능성의 목록이 증가할수록 실천의 방향이 분명하게 부각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Habermas의 비판이론의 중심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과학 관점의 현재와 미래 가정교육학 실천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1. 지식 이론(Theory of knowledge)

Habermas의 초기 이론인 Theory of knowledge는 실증주의 비판으로 시작되었는데, 실증주의의 여러 주장 중에서도 자연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의 진정한 지식은 가설-연역적 모델에서 나오며, 이런 지식은 도덕적 정치적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였다. 근대에서부터 시작된 기술과학 패러다임에 집중하여 지식을 탐구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노력이 사람들로부터 의식의 분열(fragmentation of consciousness)을 가져오게 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회의 현상이나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 분절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게 하여 현대 사회의 병폐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이런 현상은 다음 절에 나오는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에 장애를 준 배경이 된다.

초기 미국 가정학의 성립과정에서 실증주의에 기초한 응용과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던 점을 상기해보면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교육학 경우도 1990년대 비판과학 관점이 소개되기 전까지 가정생활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특히 교육과정은 가정교과 내의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전달과 개발, 그와 관련된 기능과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가정

교과의 많은 내용 요소들은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들과 관련이 있고, 특히 현대 사회의 문제는 다원적이고 복잡적이어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비판과학 관점이 요청된다.

비판과학 관점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Habermas(1971)의 *Knowledge and Human Interest*에 제시된 Theory of Knowledge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abermas(1971)는 지식을 인도하는, 즉, 인식을 이끄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인지적(혹은 인식적) 관심이라고 하였다. 인지적 관심은 인류의 자연적 발전과정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Habermas는 인간은 지식을 선험적으로 구성하는 관심을 통해 경험을 조직화한다고 보았다. 그 세 가지 인지적 관심으로 첫째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물질적 존재를 위해 요구되는 것을 생산하고 자연 현상을 예측하고 통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를 기술적 관심(technical interest)이라 하였다. 둘째로, 인간은 공동체 내에서 상호주관적으로 이해되는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인간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서로의 대화를 유지하고 의견 합의를 이루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창조에 관심을 지니는데 바로 의사소통적 혹은 실제적 관심(communicative 혹은 practical interest)이다. 셋째로, 위압적이고 지배적인 인간생활 조건과 체제에 대한 자아 비판적 능력 개발을 통한 자주적인 인간과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성찰적 전유(appropriation)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심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성찰적이며, 자기결정적인 인간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율성 및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지식의 창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Roderick, 1996, p75) 이는 바로 해방적 혹은 비판적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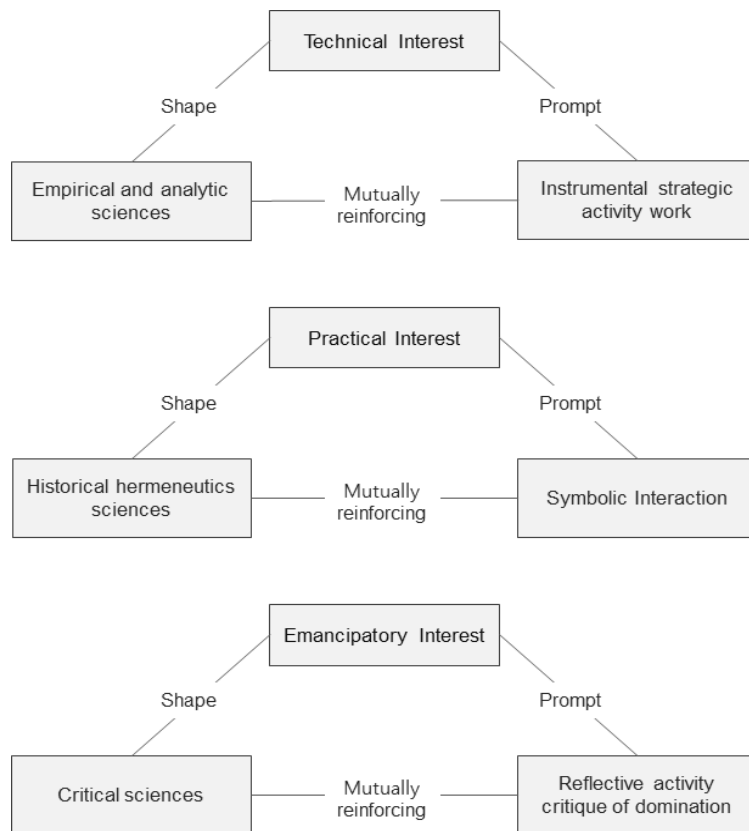


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human interest, knowledge, and action

Source: Watters(1981)

심(emancipatory 혹은 critical interest)이라 밝히고 있다.

인지적 관심은 학문을 형성하게 하고 인간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았다. <Figure 1>은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인지적 관심, 학문의 형성, 인간 행동의 촉진 관계를 보여준다.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인지적 관심에 의해 이끌어진 과학의 유형, 질문의 종류, 행동의 유형, 매개체,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요소 간의 일관적 특성을 지니는 경험·분석과학 패러다임, 역사·해석과학 패러다임, 비판과학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Table 2>는 세 패러다임 요소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 번째 기술적 관심은 ‘무엇이 사실인가?’, ‘어떻게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경험·분석과학을 형성하게 하며, ‘X를 달성하기 위해 Y를 행하는 것’이 행동의 근거로 기술적 행동을 이끈다. Brown(1980)은 기술적 행동은 수단-결과 지향적이며 특정한 결과나 목표를 추구하고 수단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 행동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조정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효율적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고, 기술적 지식이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을 결정하는데 요구된다고 하였다. 기술적 관심은 노동, 일, 연구(work) 등의 사회 매체를 통하여 예측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보편적 일반화에 도달하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둔다.

두 번째 의사소통적 관심은 ‘우리는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역사·해석과학을 형성하게 하며, ‘언어의 규칙, 사회적 가치와 규범’이 행동의 근거로 의사소통적 행동을 이끈다. Brown(1980)은 의사소통적 행동은 평상적 의사소통에서의 상호주관적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의사소통적 행동은 공유된 의미와 목표 그리고 삶의 가치의 문화적 전통이 해석되고, 개인, 그룹, 문화 간의 상호호혜적 이해를 찾고, 의도와 관습의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도덕적 갈등이 해결되는 그런 행동체계로 보았다. 의사소통적 관심에서 문학, 예술, 역사, 해석적 사회과학과 같이 매일의 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표현을 해석하는 지식이 요구된다. 의사소통적 관심은 상호작용(interaction)을 매개체로 의미의 이해, 통찰력,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에 궁극적 목적을 둔다.

마지막으로 해방적 관심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비판과학을 형성하게 하며, ‘자유에 대한 도덕적 가치, 기술적 규칙, 언어의 규칙,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근거로 하는 해방적 행동을 이끈다. Brown(1980)은 해방적 행동은 성숙한 자주성, 즉 자아를 의식의 원천 또한 세계의 본질을 개념화하는 원천으로 인식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성숙한 자주성은 독단과 무비판적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개인과 집단이 독단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이성적이 되려는, 이성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전제한다고 하였다. 이성은 신념과 행동에서 세계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므로, 해방적 행동은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존재에 관심을 갖는데, 개인의 자주성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에 의한 자기기만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만을 통해 사회구성원 집단적으로 사회에 짐 지운 고통으로부터 사회를 자유롭게 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해방적 관심은 권력(power)의 사회 매체를 통하여 사고에 기반한 이성적 행동, 강제와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궁극적 목적을 둔다.

Habermas의 Theory of knowledge를 살펴본 이유는 다른 학

Table 2. Habermas's theory of knowledge

Human interests	Technical	Communicative/practical	Critical/emancipatory
Meta-scientific perspective	Analytic-empirical science	Interpretive science	Critical science
Kinds of question	What is the case? How can we achieve a X goal?	What goal ought we establish?	What action should we take?
Kinds of action	Technical/instrumental	Communicative interaction through language	Emancipatory, social change, humanization
Media	Work	Interaction	Power
Ultimate goal	Prediction & control Produce universal generalizations	Understanding meaning, consensus, insights	Reasoned action, enlightened, free from compulsion and social control

Source: Habermas(1971), Hultgren(1982), Schubert(1986)

문분야와 마찬가지로 가정교육학 역시 세 과학 패러다임에 근거하기에 가정교육학의 이론과 실천을 개념화하는 일과 가정교육학의 대상인 개인과 가족의 행동을 이끄는 데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Habermas(1971)는 지식 이론을 통하여 실증주의의 만연으로부터 어떻게 도구적 이성인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도구적 이성과 행동을 강화하는 힘 있는 지배적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려면 자아 반사숙고와 자아 이해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바로 이 점이 현대 사회 인간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하였다.

Roderick(1996, p80)도 “해방적 관심은 비판이론은 물론, 철학을 포괄한 모든 체계적 성찰을 주도하는 관심으로, 자아비판의 과정을 전진시키고 인류의 자의식적 발전에 대한 장애를 해소하려는 것이 비판과학의 목표이다. 비판과학은 모든 사회활동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요구한다. 의사소통과 행위에 대한 체계적 왜곡을 밝혀냄으로써, 비판과학은 인류를 의식화시켜서 ‘의지와 의식’으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돕는다”라고 보아, 현대 사회에서 비판과학의 역할을 해석하였다.

Brown(1985)은 Habermas의 지식 이론은 중국엔 지식의 사회론(social theory of knowledge)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 이유는 그의 이론은 다른 여러 종류의 지식에 관한 사회적 함의를 검토하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그의 이론의 여러 범주를 사회 안에서의 행동의 범주와 각각 관련을 지어주기 때문이라 보았다. 그러므로 Brown의 이런 해석은 Habermas의 지식 이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의 지식을 인도하는 인지적 관심은 과학을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깨닫게 해주게 하므로 가정교육자들의 실천에 시사점을 얻도록 일깨워 준다.

2.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Habermas(1984, 1987)는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에서 현대 사회의 발전과 병폐는 의사소통 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판이론의 핵심개념인 생활세계(lifeworld)와 체계(system), 생활세계의 합리화(rationalization of the

lifeworld), 생활세계의 식민화(colonization of the lifeworl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 생활세계와 체계

Habermas(1984, 1987)는 그의 비판이론에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두 관점에서 사회를 개념화하였다.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해 규범적으로 통합되고 상징적으로 구조화된 영역이며, 체계는 목적합리성에 의해 주도되고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경제체계 및 행정체계로 제도화된 영역이다(Kwon, 1996). 생활세계는 언어를 매개로 상징적 재생산의 이루어지는 구체적 삶의 영역이고, 체계는 생활세계의 발전, 분화에 따라 화폐와 권력이라는 조정 매체를 통해 물질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Kim, 1996). 생활세계는 사적 영역(private sphere)과 공론 영역(public sphere)으로 양분되는데,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은 개인과 가정, 생활세계의 공론 영역은 지역사회와 매스컴 등으로 대표된다(Roderick, 1996).

Habermas(1984, 1987)는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은 경제체계와 상호 교환되며 생활세계의 공론 영역은 행정체계와 상호 교환되는 생활세계와 체계의 관계를 <Table 3>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사적 영역의 제도적 핵심(institutional order of lifeworld)을 가족으로 두고 사회적 구성요소로서 가족의 주된 기능을 사회화라고 보았다. Habermas는 사적 영역과 경제체계 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구체화 된 두 가지 역할(lifeworld role) 즉, 노동자(employee)와 소비자(consumer)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과 체계의 교환관계를 살펴보면, 노동자는 권력 매체(power medium)를 통해 경제체계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경제체계는 화폐 매체(money medium)를 통해 고용인에게 임금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화폐 매체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며, 그 대가로 경제체계는 화폐 매체를 통하여 상품들과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Habermas(1989)는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에서 공론 영역이란 공공의사(여론)가 형성되는 사회생활 영역을 지칭하였다. 시민들은 국가의 주인 혹은 개인적 이해와 관련된 사적 경제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보편적 이해를 논의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공공체(public body)로서 공론 영

Table 3. Relations between system and life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ystem

Institutional order of the lifeworld	Lifeworld role ¹⁾	Interchange relations	Media-steered subsystem
Private sphere	Employee	Labor power(P) → ← Income from employment(M)	Economic system
	Consumer	← Goods and services(M) Demands(M) →	
Public sphere	Client	Taxes(M) → ← Organizational accomplishments(P)	Administrative system
	Citizen	← Political decisions(P) Mass loyalty(P) →	

M = Money medium P = Power medium

Source: Habermas(1987, p320)

¹⁾ This column added from White(1988, p109)

역의 일각에 참여한다. 여론이란 공공체가 국가에 행사하는 비판, 영향력, 통찰과 통제를 지칭한다(Roderick, 1996, p62). 공론 영역의 제도적 핵심은 문화적 복합체, 언론, 그리고 대중 매체에 의해 확장된 의사소통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Habermas는 공론 영역이 예술·문학 영역과 정치적 공론 영역이며,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시민이 정치적 참여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행정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공론 영역에서 생활세계 역할은 수혜자(client)와 시민(citizen)이다. 생활세계의 공론 영역과 행정 체계 간의 교환관계를 살펴보면, 수혜자는 화폐 매체를 통해 행정체계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행정체계는 권력 매체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체계는 시민에게 권력 매체를 통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한편, 시민은 권력 매체를 통하여 참정권을 갖게 된다.

나. 생활세계의 합리화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행위와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며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개인의 배경이 되면서 ‘이해과정’을 지지하며 돕는 것이다. Habermas(1979)는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에서 사회적 행동과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로 나누고, 의사소통적 행위는 다시 이해 도달을 위한 행위와 합의를 위한 행위로 나눈 바 있다. 그러므로 Habermas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의 의사소통은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생활세계는 문화, 사회, 개인(인격)의 구조적 구성요소로 이

루어진다(Habermas, 1987). “문화는 의사소통 참여자들로 하여금 세계 속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 서로 이해에 도달함으로써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지식의 저장물이다. 사회는 의사소통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회적 집단에 대한 소속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따라서 유대를 조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질서이다. 인격은 한 주제로 하여금 언어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며 이해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적 실천의 연결망 안에 얽여져 있는 상호작용이 문화와 사회와 인격을 재생산시켜주는 매체이다”(Jang, 1995, p179).

Habermas는 문화, 사회, 개인을 단순히 의사소통 행위자들이 의지하는 자원들의 추상적인 요소로만 다루지 않고 ‘사회가 어떻게 스스로를 재생산하는가’, 즉 ‘사회가 어떻게 스스로 진보하고 발전해나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용한다(Baxter, 2011). Habermas(1984, 1987)는 사회의 재생산에는 상징적 재생산과 물질적 재생산의 두 가지 측면이 있으며, 상징적 재생산은 문화, 사회, 개인이라는 생활세계 구조적 구성요소들의 재생산을 말하며 각각 ‘문화적 재생산(cultural reproduc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사회화(socialization)’라는 재생산 과정을 수행한다. 문화적 재생산은 문화적 지식을 전달하고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회통합은 공유되는 규범과 제도화된 가치를 통하여 사회의 연대성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는 사회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인의 자아형성을 이루어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 차원의 상징적 재생산이 의사소통 체계를 통하여 의미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생활세계의 합

리화'라고 한다. 생활세계는 사람들에게 의문 없이 당연히 여기게 되는 지식, 규범과 행동유형을 제공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에 대해 의문시하게 되어 의사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이해에 이르고자 하고 어떤 방향으로의 합의에 이르고자 하게 되는데 이때 상징적 재생산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을 기존의 세계 상태에 확실하게 연결하도록 해주어 생활세계의 합리화를 이루어 나간다. “생활세계의 문화적 재생산은 의미론적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이 기존의 세계 상태에 확실하게 연결하도록 한다. 전승의 연속성과 그때그때 일상실천에 충분한 지식의 정합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생활세계의 사회통합은 사회적 공간의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이 기존의 세계 상태에 확실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그것은 행위조정이 정당한 질서에 따라 규제되는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상의 실천에 충분한 정도로 집단 정체성을 지속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세계 구성원들의 사회화는 역사적 시간의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이 기존의 세계 상태에 확실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자라나는 세대가 일반화된 행위능력을 획득하도록, 그리고 개인의 생활사와 집단의 생활형식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Habermas, 2017, p228-229).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사회화 과정에 구조적 구성요소인 문화, 사회, 개인이 각각 대응하며 생활세계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어느 한 요소의 재생산은 다른 두 요소의 재생산에도 기여한다(Habermas, 1987). 예를 들어, <Table 4>에서 문화가 생활세계 안에서 주어진 상호이해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만큼의 타당한 지식을 제공한다면, 문화적 재생산은 다른 두 요소(사회와 개인)의 재생산 과정을 위하여 즉,

사회를 위하여 가족의 제도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개인을 위하여 일반화된 행위능력을 획득하도록 자아형성을 위한 또한 교육 효과를 내는 행동유형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생활세계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의사소통 행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화, 사회, 개인이라는 지평을 형성해주는 맥락으로서의 의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화적 지식을 전승 및 갱신해주며 연대성을 확립하여 사회적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해주는 자원으로서의 의미이다(Mathieu, 1996). 이러한 생활세계의 구조적 구성요소를 유지하기 위한 재생산 과정은 다음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째, 문화적 재생산 과정은 합의에 이르는 해석 도식(타당한 지식), 정당성, 자아형성에 영향을 주는 행동 유형에 기여하고, 둘째, 사회통합 과정은 의무, 인간 상호관계, 사회적 소속감에 기여하며, 마지막으로 사회화 과정은 해석적 성취, 규범 준수 행동을 위한 동기 형성, 상호작용능력에 기여한다.

다. 생활세계의 식민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증대를 의미하는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근대화의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근대화는 사회체계가 더욱 분화되고 복잡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Habermas(1984, 1987)는 체계가 고유한 체계의 영역에서 벗어나 생활세계의 영역에 침투하게 되는 것, 즉 의사소통적 구조를 갖는 삶의 영역들이 독립적인 행위 체계들의 명령에 놓이게 된 것에서 근대화의 한계를 규정하였다. 이것이 ‘생활세계의 식민화(colonization of lifeworld)’의 명제이다.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생활세계가 도구

Table 4. Contributions of reproduction process to maintaining the structural components of the lifeworld

Reproduction process	Structural Component		
	Culture	Society	Personality
Cultural reproduction	Interpretative schemata susceptible to consensus (valid knowledge)	Legitimation	Behavioral pattern influential in self-formation, educational goals
Social integration	Obligation	Interpersonal relations	Social membership
Socialization	Interpretative accomplishment	Motivation for norm confirmative actions	Capable for interaction (personal identity)

Source: Habermas(1982, 1987, p142)

적 이성에 의해 식민화되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지닌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당한 현상을 일컫는다. Habermas(1984, 1987)는 이를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체계 복잡성의 증가를 가능하도록 하는데, 체계 복잡성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고삐 풀린 체계명령은 생활세계를 도구화하고 생활세계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Habermas, 2017, p247)”고 설명한다.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체계 복잡성의 증대에 따른 국가 관료제의 비대화와 자발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여론형성을 고갈시키는 정치적 공론의 비판적인 잠재력의 약화로 나타난다(Kim, 1996). <Table 3>에서 생활세계와 체계의 교환관계에서 경제체계는 금전화(monetalization)되고 행정체계가 관료화(bureaucratization)되어 화폐와 권력이 본연이 매체적 역할을 벗어나 상징적 재생산이 진행되는 생활세계로 침범할 때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야기된다(Roderick, 1996).

이런 현상이 일어난 배경으로 앞서 지식의 이론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현대 인류 사회의 최대 근본 문제인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의식구조의 분열(fragmentation of consciousness)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식구조의 분열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의식구조를 지배해온 실증주의와 그에 근거한 사고방식의 발달이 주원인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는 Habermas가 일컫은 지식 개발에 대한 기술적 관심에만 모든 학문의 발달이 집중되어 모든 학문이 과학적인 지식개발에 주력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 내 분야가 세분화, 전문화가 되었고 많은 경우 총괄성을 잃게 되었다(Yoo, 1992). 이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에게 최대의 악영향을 미친 왜곡된 사상적 믿음(distorted set of belief), 즉 부정적 의미의 이데올로기(ideology)와 함께 현대 사회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왜곡된 사상적 믿음은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의식구조에 뿌리 깊게 자리잡혀 있는데 강압적이고 위압

적인 경제와 정치체계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은 소위 말하는 전문화된 문화(expert culture)가 의식구조에 박혀 아주 간단한 일상생활의 문제점들도 전문인이나 그들의 지식을 신봉하고 의지하는 비지주적이고 수동적인 집단이 된다. 이런 의존성은 스스로의 의사소통 체계를 붕괴시키게 되고 이런 시민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사회는 경제, 정치 체제에 대해 무비판적이 되고 위압적인 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Habermas(1984, 1987)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때 결과적으로 인류는 심각한 기능 장애에 당면한다고 예고하였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재생산 과정에서 병폐와 관련된 위기 현상을 다음의 <Table 5>에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적 재생산 과정의 장애는 의미의 상실, 정통성의 철화, 교육 및 사상의 발달 위기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경우 행위자들은 새로운 상황과 함께 등장하는 상호이해의 필요성을 더이상 문화적 비축 지식에 의거하여 충족시키지 못한다.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해석의 도식이 말을 들지 않으며 ‘의미’ 자원이 부족해진다”(Habermas, 2017, p228). 둘째, 사회 통합 과정의 장애로부터 인공공동체 의식의 불확실화, 사회적 무질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경우, 행위자들은 새로운 상황과 함께 등장하는 조정의 필요성을 더이상 기존의 질서를 통해 충족시키지 못한다. 정당한 질서에 따라 규제된 사회적 소속 상태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연대’의 자원이 부족해진다”(Habermas, 2017, p229). 마지막으로 사회화 과정의 장애는 전통의 붕괴, 동기의 움츠림, 심리 이상 현상을 초래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이런 경우 행위자들의 능력은 공통으로 정의된 행위 상황의 상호주관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인성체계는 방어 전략을 통해서나 겨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Table 5. Crisis phenomena connected with disturbances in reproduction

Disturbances in domain of	Structural component		
	Culture	Society	Person
Cultural reproduction	Loss of meaning	Withdrawal of legitimation	Crisis in education
Social integration	Insecurity of collective identify	Anomie	Alienation
Socialization	Breakdown of tradition	Withdrawal of motivation	Psycho-pathologies

Source: Habermas(1982, 1987, p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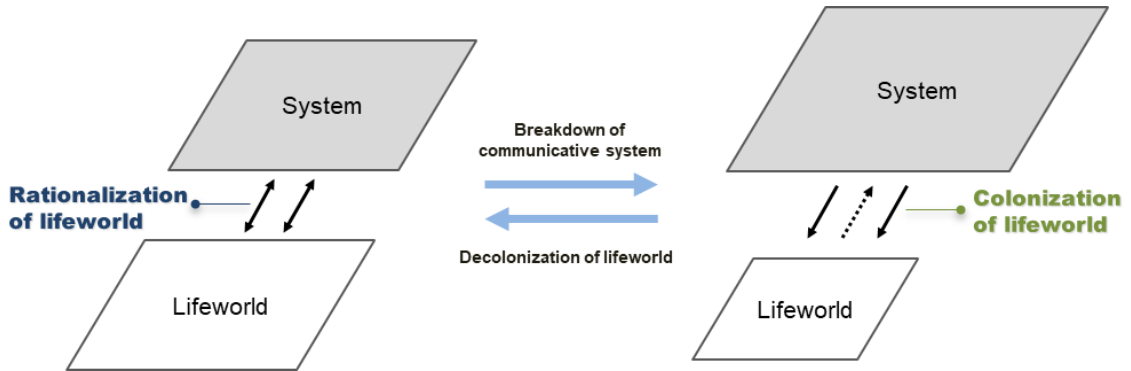


Figure 2. Change of the mechanism between lifeworld and system

따름이다. 이러한 방어 전략은 현실에 적합하게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자아의 힘’ 자원이 부족해진다’(Habermas, 2017, p229).

Habermas(1984, 1987)의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을 살펴본 이유는 가정교육학은 개인과 가족이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과 공론 영역, 체계라는 생활의 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세 섹션으로 생활세계와 체계,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을 살펴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세계를 사적 영역으로, 체계를 공론 영역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생활세계에는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자와 소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론 영역이 있어서 수혜자와 시민의 역할이 있음을 보였다.

둘째, <Figure 2>와 같이 생활세계와 체계가 동등한 힘으로 양방향의 의사소통 체계를 통하여 서로 지원하고 영향을 주며 의미 있게 상징적 재생산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세계 합리화 과정과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의사소통 체계가 붕괴(breakdown of communicative system)되고 체계의 힘이 비대해져 둘 간의 영향력의 균형이 깨지게 된 생활세계의 식민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정교육학 실천에서 개인과 가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다.

셋째,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사회 병리 현상은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요구에 부딪친다(Kim, 1996). Habermas는 자율적인 주체들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의 규범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서 생활세계를 복원하면 근대화로 인한 현대 사회의 병

리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Figure 2>의 중앙에 위치한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비판과학의 과제를 생활세계의 탈식민화(decolonization of lifeworld), 즉 생활세계의 식민화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장애 현상들은 가정교육학이 추구하는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인간의 조건(human condition)과는 상반됨을 깨달을 수 있으며 이 깨달음으로 인해 비판과학 관점에서 가정교육학의 실천을 위한 책무와 임무를 파악할 수 있다.

IV. 비판과학 관점에서 가정교육학의 실천 방향

1. 가정교육학에서 비판과학 관점이 요청되는 배경

전문인의 관점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다. 관점이 없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방향성을 찾기가 힘들다. Dahnke와 Dreher(2016)는 실천에 중심을 둔 학문분야는 그 분야가 근간으로 하는 철학에 의존하고, 새로운 구성원들을 철학 내에서 교육하고, 그 철학에 관한 실천에 기초하여 학문분야에 관하여 대중을 교육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Brown(1980)이 가정교육학을 실천학문으로 정의한 바, 가정교육학의 경우도 가정교육학이 근간으로 하는 철학에 의존하고, 새로이 가정

교육학에 입문하는 전공자들을 가정교육학 철학 내에서 교육학 책임이 있다. McGregor, Pendergast, Seniuk, Eghan와 Engberg(2008)는 패러다임(paradigm), 철학(philosophy), 이론적 지향(theoretical orientation), 실천(practice)과의 관계를 제시하면서 특히 패러다임은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철학, 이론적 지향, 실천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우리의 전문활동은 패러다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특정 패러다임에 대하여 우호적 입장은 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나 그룹의 관점에서 기초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옹호하는가는 어떤 관점을 갖는가와 그 의미가 같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서 메타과학의 세 패러다임 중에서 비판과학 패러다임을 옹호한다면 비판과학 관점에서 가정교육학의 제 영역에서 이론과 실천에 관한 활동을 지지하고 수행하는 것과 같다.

현재와 미래 가정교육학 실천에서 비판과학 관점이 요청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정교육학은 학문의 본질적인 면에서 실천학문이고 동시에 학문의 범주 면에서 전문분야에 속하는데 전문분야는 학문의 사명을 갖고 있다. Brown과 Paolucci(1979)는 가족으로 하여금 세 행동체계의 구축과 유지를 통하여 가족구성원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을, 사회적 목적과 수단을 협동적으로 찾는 데 참여함으로써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돕는 것을 가정학/가정교육학의 사명으로 제창하였다. Brown과 Paolucci(1979)가 가정학/가정교육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자유로운 인간과 자유로운 사회의 구현은 기술과학으로부터의 생존을 위한 물자의 생산과 확보, 자연 현상의 예측과 통제 그리고 해석과학으로부터의 인간 경험에 대한 통찰력, 진정한 의미의 이해 도달과 합의를 이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개인과 가정 자체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기보다 그 근원이 사회적 조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과 가족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기이해와 자아성찰이 필요하고(Roderick, 1996), 문제의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의 해결에는 가정교육학의 핵심인 개인의 자율성, 가정의 건강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인간의 조건(human condition)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간의 조건은 개인, 가족, 사회, 문화, 환경 등 그물망의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의사소통 행동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근원부터 변혁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지식 이론이 사회적 지식의 이론이라고 평가되는 바와 같이 지식과 행동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듯이 비판과학의 지식으로부터 인간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가족, 사회, 문화, 환경의 조건을 변혁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해방적 행동에 이르게 하는 권력(power)이 요청된다.

또한 전통적으로 가정교육학은 기술적 관점에 치중해 왔기에, 미래 사회에서의 변혁을 이끌기 위해 기술과학과 해석과학 이외에도, 비판과학 지식과 방법이 요구된다. 비판과학은 철학과 과학의 융합적 학문으로 분석과 비평의 철학적 방법과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종합하므로 비판과학 관점은 가정교육학의 내용과 과정 두 측면 모두에서 가정교육학의 관점으로 요청된다. 비판과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성적 행동, 임파워먼트, 사회적 삶의 근원에 대한 비판적 깨달음, 자아성찰은 미래 사회 가정교육학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기에 적합하다.

2. 가정교육학의 기여가 기대되는 실천의 장

가.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을 위한 실천

Brown(1980)에 따르면 가정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스스로의 자아형성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가족은 개인이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변함없는 기반이 되며 인간의 자연환경을 지배하기 위한 행동,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치나 믿음을 나누어 의견 일치를 보고자 하는 행동, 자주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행동들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터전을 가족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가정교육학은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을 위하여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을 지각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와 힘을 키우고 변혁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가정교육학은 생활세계 사적 영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하고 지원함으로써 비판이론에 기초해 실천해 나갈 수 있다. 가정교육학은 개인을 위한 실천으로 개인

의 임파워먼트(individual empowerment)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첫째, 사회와 개인의 자아형성 과정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개인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은 자아형성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스스로 만들고 행동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낸다. 셋째,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넷째, 계몽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구축하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해방적 관심을 충족한다.

가정교육학은 가정을 위한 실천으로 가족의 임파워먼트(family empowerment)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첫째, 가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의식적 변화와 방향을 위한 원천임을 인식한다. 둘째, 가족은 인간발달, 자기형성을 강화하고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킨다. 셋째, 가족이 세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사회목표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넷째, 가족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용어가 아닌 문화, 사회와 관련된 총체로 해석한다. 다섯째, 가족은 변화가 요구되는 사회변화를 위한 공공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자율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임을 인식한다.

나. 생활세계의 공론 영역을 위한 실천

Habermas(1979)에 따르면 지배라고 불리는 자기형성 과정의 왜곡된 구조는 기술적·실천적 지식의 이데올로기화를 일으킨다. 자기형성 과정이 지배, 억압 및 행위의 이데올로기적 틀로 규정된다면 인간의 자기이해는 정당화되지 못한 사회적 조건들

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도덕은 결정과 행위에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동반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도덕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때는 도덕적인 행위자로 볼 수 없으며 개인과 가족이 변화의 실행자로서 임파워먼트가 강화되어야 한다면 정치적·도덕적 관점의 활동이 요구된다(Brown, 1978). 그러므로 개인과 가족은 개별 단위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Brown과 Paolucci(1979)가 제창한 사명에서 가족이 사회적 목적을 세우는 데 참여하도록 한 부분은 가족이 생활세계의 공론 영역에서 변화 실행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가정교육학은 생활세계의 공론 영역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하고 지원함으로써 비판이론에 기초해 실천해 나갈 수 있다. 가정교육학은 공론 영역에서의 의사소통, 합의, 공공의 변혁적 행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의 조건과 사회의 조건(sustainable human-societal condition)을 이루어 나가는 데 주력한다. 첫째, 사회 조건과 인간 조건, 그 조건이 개인 및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반성과 비판에 비추어 사회 조건과 인간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한다. 셋째, 숨겨진 강박, 비합리, 억압에서 벗어나 왜곡된 신념과 숨겨진 가치 이데올로기를 의식한다. 넷째, 지속적으로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다. 다섯째, 가족에게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형성한다.

아래 <Figure 3>의 두 그림을 살펴보면 Yoo(2006)는 가정과 교육, 사회과교육, 도덕교육에서 생활세계와 체계를 다루는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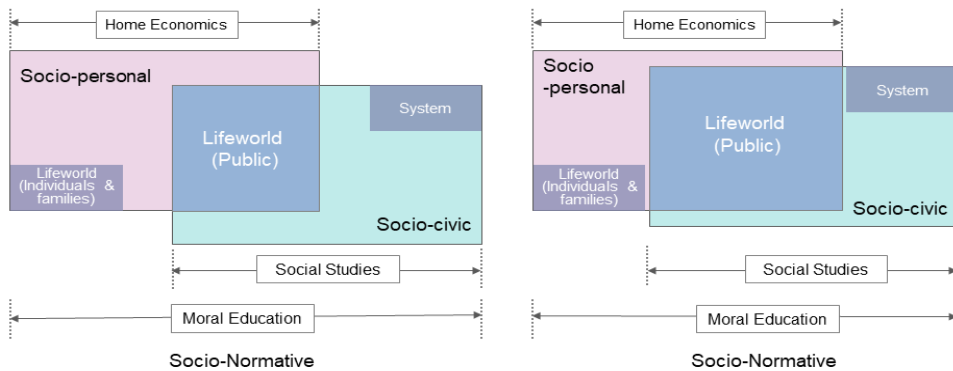


Figure 3. Expanding contribution in the context of lifeworld(public sphere)

역을 비교하기 위해 왼쪽 그림으로 현재를 표현하였다면 오른쪽 그림은 미래를 예견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림의 중앙 부분인 생활세계의 공론 영역(public sphere) 부분의 확장이다. 가정생활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범주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 문제의 해결도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의식주, 가족과 같은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에 국한할 수 없으며 공동체 생활, 시민 활동, 지역사회와 일, 사회적 지원체계, 문화 창출과 같은 생활세계에서 공론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Yoo, 2006).

다. 체계의 변혁을 위한 실천

비판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계와 생활세계의 밀접한 관계는 가정교육학의 실천의 장의 중점이 생활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학의 실천에서 체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분적 실천일 수밖에 없다. 생활세계에서의 실천에 대한 논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사회는 개인의 행동에 의해 형성되고 조절되는 조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는 상호의존적이다. Brown(1985)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정치, 경제, 교육, 행정 등의 사회적 기관들과 연관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고 가정학에서 다루는 개인과 가정생활의 문제는 순수하게 개인이나 개별가정이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사회적 조건이나 체계로부터 발생한 부분이 많으므로 가정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치적인 측면이 배제될 수 없음을 ‘정치적(political)’ 의미를 가장 먼저 다룬 것에서 강조하고 있다. Brown(1980)은 대부분 사회가 현재의 체제와 이념을 지지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강력한 정치, 경제, 혹은 문화체계의 위압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사회의 이런 세력이 비대해지면 대중이 체제에 대한 비판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결과적으로 대중의 안녕과 복지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사회체제나 이념에 대한 개인의 비판력이며 이에 따라 비판과학 관점을 토대로 사회와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을 자각하고 개인의 자주성과 안녕, 복지 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Brown과 Paolucci(1979)는 개인과 가족을 변화의 주체로 보았고, 비판과학 관점을 통하여 기존의 생각과 가치를 바람직한 것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개인과 가족이 ‘변화의 실행자’로서 세 행동체계를 통해 사회·경제·정치체계에 있어 기존의 생각과 가치를 바람직한 것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Figure 4>와 같이 제시하였다. <Figure 4>는 사회·정치·경제체제에서 사회적 형상과 이념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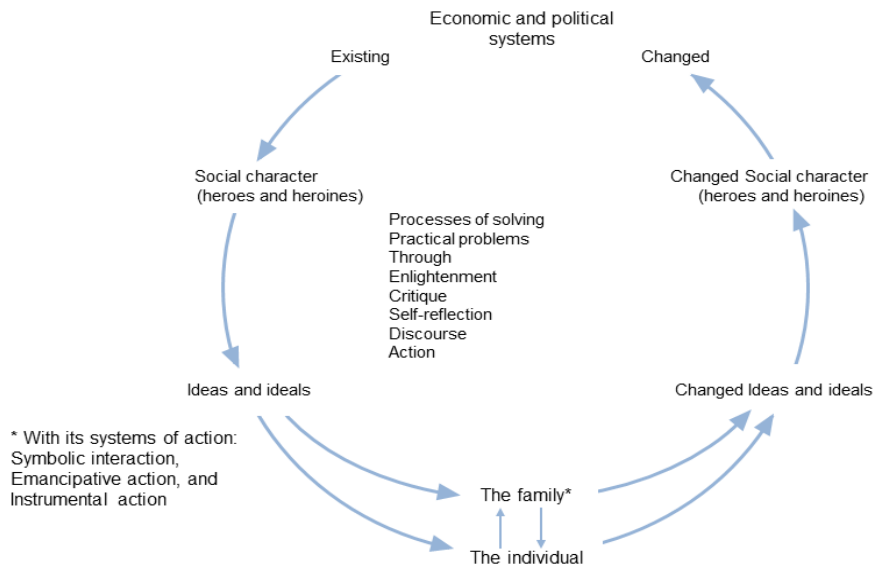


Figure 4. A conceptual scheme of the family as an agent of transformation

Source: Brown & Paolucci(1979, p53)

인과 가족이 이념과 이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형상을 변화시켜 사회·정치·경제체계를 바람직한 조건으로 형성시켜가는 개념적 체계로서 기존의 상태를 세 행동체계를 통하여 비판적, 참여적 변혁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Yoo(2001)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체계’가 ‘생활세계’를 침범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면 미래 사회는 탈식민화를 이뤄야 하며 더 나아가 생활세계가 ‘체계’를 주관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생활세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더욱 확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정과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져 생활의 개념도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비판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원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체계가 생활세계를 지원하는 하나의 장치로 보기보다는 생활세계의 주체가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양식이나 방식으로 융합된 실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비판과학 관점에서 가정교육학의 기여 사례

가. Vision & Philosophy 제시: IFHE의 사례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IFHE, 2008)는 *Position Statement: Home economics in the 21st century*에서 21세기의 가정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학문분야(academic discipline)에서 가정학의 내용은 다학문적 분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식품, 영양, 건강, 의복, 주거와 주택, 소비와 소비과학, 가정 관리, 디자인과 기술, 식품과학과 접대, 인간발달과 가족연구, 교육과 공동체 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IFHE, 2008). 학문의 다양성은 가정학이 글로벌(glocal) 수준에서 정치, 사회, 문화, 생태, 경제, 기술 체계에 개입하고 변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IFHE는 비전과 철학을 학문분야(academic discipline), 일상생활(everyday living), 교육과정(curriculum area), 사회와 정책(society & policy)의 네 가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음의 네 번째 사회와 정책 영역에 제시된 실천의 본질에서 비판과학 관점이 반영된 것이 가장 잘 드러난다.

첫째, 전문분야와 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식과 사고방식을 창

안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학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문분야 영역, 둘째, 인간의 성장 잠재력 및 인간의 필수품 또는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구를 개발하기 위해 가정, 가족,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위한 영역, 셋째, 학생들이 전문적 결정과 행동을 이끌거나 삶에 대비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 삶에 사용할 자원과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 영역, 넷째, 임파워먼트와 웰빙을 성취하고, 변혁적 실천을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 가족 및 공동체를 옹호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회와 정책 영역으로서 서로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있다(IFHE, 2008).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실천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전문분야가 끊임 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항상 전문분야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회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과 도전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야 한다.

나.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의 이론적 기초 제공

비판과학 관점은 Brown과 Paolucci(1979)의 *Home Economics: A definition* 이후 1980년대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 안내서가 개발된 것을 시작으로 1998년 미국 가정과 국가 기준에서 행동을 위한 추론 기준과 과정질문 개발의 이론적 기초로 관철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여러 나라 가정교육학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비판과학 관점이 반영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우리나라 가정과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비판과학 관점에서 가정교육학의 실천은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의 가정(assumption)을 설정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가정과 국가 기준, 미국 오리건 주와 위스콘신 주 교육과정 안내서에는 비판과학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통하여 구현될 목표를 개인과 가족, 사회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Brown(1980: Ju, 2014 재인용)의 개인, 가족, 사회에 대한 전제(presupposition)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개인은 태어나면서 타인과 그들이 사는 사회와 관련을 맺는다. 개인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가치나 규범, 문화의 영향을 받는 행동의 의도와 목표에 의하게 되는데, 개인은 자아를 이해하고 발견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자아형성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의지는 일상생활에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주적인 개인이

되려고 하는 것에 기인한다. 궁극적으로 가정교육의 기본 목표에는 개인의 자주성 함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로, 가족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안녕을 이루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정교육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족 환경으로서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키워야 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의 목표는 가정 내에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조건에 대한 지각과 그에 대한 비판적인 힘과 해결책이 배양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개인의 행동에 의해 형성되고 조절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는 상호의존적이다. 대부분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체제의 위압을 통해서 현재의 체제와 이념을 지지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대중의 안녕과 복지가 상실되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개인의 사회체제나 이념에 대한 비판력이다. Ju(2014)는 이와 같은 전제에 따라 가정교육의 목표는 비판과학 관점을 토대로 사회와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을 자각하고 개인의 자주성과 안녕, 복지 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비판과학 관점은 여러 나라 가정과 교과역량 설정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여기서는 Pendergast(2015)의 소비자교육을 위한 호주 가정과 교육과정의 가정학 리터러시(home economics literacy) 개발 사례의 배경을 소개한다. 가정학의 복합적 리터

러시는 음식, 건강 리터러시 즉 물리적, 감정적, 재정적 리터러시, 기술적 리터러시, 가정 웰빙 리터러시, 고용 능력, 환경 사용 능력 및 초기 아동 발달의 리터러시를 포함한다(IFHE, 2015). 가정학 전문가들은 행동 변화가 모든 리터러시의 주요 목표이며 우리는 또한 습관과 행동의 변화, 가장 어렵고 복잡한 현상이 모든 리터러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다(Kieren, Vaines, & Badir, 1984; Stage & Vincenti, 1997). 가정교과는 기능, 문화, 체계 및 행동과 같은 요소들을 상호연결하는 방식으로 복합적인 리터러시(multiple literacies)를 다루어 왔으며 과학, 교육, 일상생활, 그리고 옹호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둔다(Pendergast, 2015). <Table 6>은 IFHE(2008)에 나타난 가정학의 네 가지 실천 영역에서의 소비자 교육구성 틀 개발 사례로 개인과 가족의 요구, 다학문적 통합, 변혁적 행동 영역으로 구성된다. <Figure 5>는 가정학 리터러시(home economics literacy)가 가정교과의 사명을 수행하고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됨을 보여준 사례이다. 한 축(area of practice)은 IFHE(2008)의 실천 영역과 동일하게 학문분야(academic discipline), 일상생활(everyday living), 교육과정(curriculum area), 사회와 정책(society & policy)으로 구성하였고, 다른 한 축(essential dimension)은 개인과 가족의 근본적 요구와 실천적 관심사, 지식과 기능의 다학문적 통합, 모든 사람의 역량을 위한 변혁적 행동으로 구성하여 이 두 축에서의 리터러시가 좋은 실천(best practice)을 이끈다고 보았다.

Table 6. Example of the essential dimensions and the areas of practice of Home Economics: Consumer studies

Consumer studies	Needs of individuals & families	Multidisciplinary integration	Transformative action
Academic discipline	Identify gaps in food labelling research	Investigate, graphic design, nutrition knowledge, branding conventions	Propose new labelling conventions to meet the needs of food decision makers
Everyday living	Selection of household products and services	Use scientific processes to analyse product service qualities	Empower individuals to make decisions about product and service selection
Curriculum area	Identify consum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a core learning area	Incorporate content from a range of knowledge bases (e.g. finance and budgeting)	Empower students to exercise their rights through a practical application
Society & policy	Access consumer policy documents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Consider the breadth of policies related to consumer law	Provide advice as a consumer advocate on a government committee

Source: Pendergast(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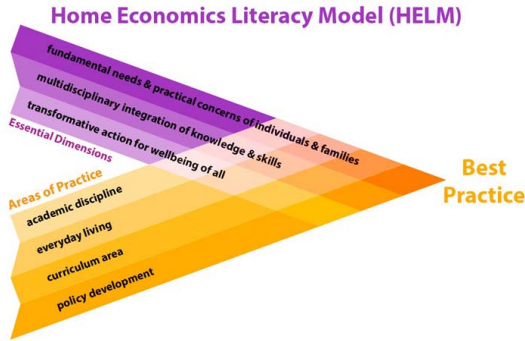


Figure 5. Home economics literacy model

Source: Pendergast(2015)

다. Advocacy(옹호활동) 사례: UN SDGs 2016 Position Statement

1994년 ‘가족’을 정치적 문제로 삼고 가족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 IYF)를 추진한 IFHE에서 UNESCO, UNISEF를 비롯한 다른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협동해 온 구체적인 분야로는 평화 교육, 젠더 문제/여성의 임파워먼트 향상, 여성의 생식 문제, HIV/AIDS, 인간의 권리와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한 중재 프로젝트 등이 있다. 성평등,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같은 문제는 UN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에 필수적이었다. MDGs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2016년 발효된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을 목표로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혁신, 지속 가능한 소비, 평화, 정의와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여 17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목표에 맞추어 IFHE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position statement를 개발하였으며,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 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 증진’,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 증진’, ‘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이 있다. 이 가운데 빈곤과 기아 종식과 같은 두 가지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곤 종식을 위한 7가지 전략은 ‘빈곤 퇴치의 핵심 요소로서 가정과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며’, ‘지속 가능한 생계, 기업가적

기회 및 생산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특히 여성의 경우)’,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여 빈곤이 여성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 해결’, ‘모든 연령층의 개발 및 선진국에서 일상생활 관리 교육 강화’, ‘노인처럼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보호 시스템 개발’, ‘안정적인 경제, 정치 및 사회 프레임워크 조건 확립’,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이다. 기아 종식을 위한 제로헝거 챌린지(zero hunger challenge)의 비전과 목표로는 ‘기아, 영양실조, 농촌 빈곤이 없는 세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식품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식품 안전, 영양 및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농업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모든 식품 시스템을 장려, 참여, 가속화 및 개발’하는 것에 두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판과학 관점에 근거하여 미래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갈 가정교육학의 방향을 탐색하였으며, 설정한 연구 내용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래 사회변화를 메가트렌드와 카운터트렌드로 보는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관점에 따라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와 대응, 실천의 방향은 달라지며, 이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래 사회를 보는 관점에 따라 교육의 실천 방향에 대한 설정은 달라지게 되므로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래 사회변화를 어떤 관점에 기초하여 전망해보는 것은 가정교육학의 중심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 문화, 환경의 장(milieu)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기여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비판과학 관점에서 가정교육학의 실천과 관련 있는 비판이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비판과학 관점의 근간이 되는 비판이론에서 가정교육학에 시사점을 주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비판과학 관점의 이론적 기초인 비판이론에서 지식의 이론과 의사소통 행위 이론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비판과학 관점을 갖는 가정교육학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가 되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에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식의 이론을 통해서 인간은 근본 관심, 지식, 행동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역사적으로 기술 과학 패러다임에 치중할 때 의식의 분열과 왜곡된 의식을 야기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과 공론 영역, 체계의 관계를 보여주며, 생활세계의 합리화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을 통하여 현대 사회의 이상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가정교육학이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에 집중해 왔다면 개인과 가족은 생활세계의 공론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교육학은 어떤 장에서 어떤 실천을 하여야 하는가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비판이론에서 다루었던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 생활세계의 공론 영역, 체계의 변혁을 위한 가정교육학의 실천 방향을 탐색한 결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과 가족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을 제대로 유지하고, 생활세계의 탈식민화를 위해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요청된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로부터 비판과학 관점에 기초하여 개인, 가족,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길러 개인과 가족의 안녕과 더불어 자유로운 개인과 사회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교육학은 개인과 가족이 자기이해와 자아성찰을 통하여 자신과 사회의 자아형성 과정을 해나가도록 돕고, 생활세계와 체계의 문제에 내재하는 왜곡된 믿음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정학의 사명에 제창된 세 행동체계, 특히 해방적 행동으로 변혁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

가정교육학의 목표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사고,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관점을 가짐으로써 사회적으로도 가정생활에 의미 있는 인간의 조건과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진정 개인과 가족의 사고와 행동으로 정당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학을 통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사고력, 사회적 현상의 이해, 여성과 가족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인식과 비판,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 능력을 길러주어야만 가능하다(Yoo, 2001). 이에 비판과학 관점은 개인과 가족이 속한 생활세계, 사회의 경제, 행정체계를 다루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교육학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적합한 이론

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 비판과학 관점에서 가정교육학의 실천 방향에 대한 탐색은 임의적으로 제시한 학문의 발전 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해주며 보다 타당한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다가오는 미래 변화의 메가트렌드를 무비판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바람직한 실천 방향으로의 변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어떤 사회적 조건이 적합하고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인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문제 인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천에 이르는 의지와 역량이 요구되는데,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고 의사소통적 상호작용과 이성적 실천을 핵심으로 하는 비판과학 관점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Habermas(1984, 1987)의 비판과학 관점에서의 실천은 생활세계와 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적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비판과학 관점은 개인과 가족, 사회, 문화,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가치 판단을 통한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실천학문으로서의 가정교육학의 성격과 사명 수행에 부합된다. 궁극적으로 비판과학은 인간해방의 문제까지 다루기 때문에 인간은 내적·외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을 획득하게 된다(Roderick, 1996). 본 연구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비판이론에 기초한 가정교육학의 실천은 자유로운 개인과 가족, 미래 사회를 위한 변혁을 이끌 수 있음이 설득력 있게 주장되었다.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정교육학의 실천은 첫째, 생활세계의 개인과 가족은 개인의 임파워먼트(individual empowerment)와 가족의 임파워먼트(family empowerment)를 강화하고, 자주성과 비판적 의식을 고양하고, 세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생활세계의 공론 영역을 위해 인간의 조건을 만드는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지원한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서 비판적이고 반사숙고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며,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변혁적 리더십으로 실천(praxis)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Anderson, K., Kruse, M., Persson, H., Mogensen, K., & Eriksen, T. (2006). *10 megatrends toward 2020*. Copenhagen, Denmark: Copenhagen Institute of Future Studies.
- Baldwin, E. E. (1995). Transformative professional practice: Overcoming ambivalence, building community. *Kappa Omicron Nu FORUM*, 8(2), 21-37.
- Baxter, H. (2011). *Habermas: the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rgmann, A. (2000). The moral complexion of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6(4), 418-422. doi:10.1086/209572
- Brown, M. M. (1978). *A conceptual scheme and decision-rules for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 Madison, WI: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Brown, M. M. (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sot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Vocational Education.
- Brown, M. M. (1985). *Philosophical studies of home economics in the United States: Our practical intellectual heritage* II.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for Vocational Education.
- Brown, M. M., & Paolucci, B. (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Alexandria, VA: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Chang, J. H., Han, S. G., Lee, J. Y., & Seo, Y. S. (2011). *Worklife in 2030*.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Covey, S. (1989).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New York: Free Press.
- Dahnke, M. D., & Dreher, H. M. (2016). *Philosophy of science for nursing practice: Concepts and application* (2nd ed.). NY: Springer Publishing.
- Habermas, J. (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J. Shapiro, Trans). Boston, MA: Beac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8).
- Habermas, J. (1979). *Communication and evolution of society*. (T. A. McCarthy, Trans). Boston, MA: Beac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6).
- Habermas, J. (1982). A reply to my critics. In J. B. Thompson and D. Held (Eds.), *Habermas: critical debates*. Cambridge, MA: MIT Press.
-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 and rationalization of society*, Vol I. (T. A. McCarthy, Trans). Boston, MA: Beac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Vol II. (T. A. McCarthy, Trans). Boston, MA: Beac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Habermas, J.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T. Burger, & F. Lawrence, Trans). Cambridge: Pol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2).
- Habermas, J. (2017).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2*. (C. I. Jang, Trans). Pajou: Nanam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Hultgren, F. H. (1982). *Reflecting on the meaning of curriculum through a hermeneutic interpretation of student-teaching experiences in home econom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 (2008). *IFHE position statement 2008: Home economics in the 21st century*. Bonn: IFHE.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 (2015). *Press release: World home economics day 21 March 2015. Home Economics literacy: Skills for families and consumers*. Bonn: IFHE.
- Jang, E. J. (1995). *의사소통의 사회이론 [Social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Seoul: Kwanacksa.
- Ju, S. E. (2014). *Integrative home economics curriculum development from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through delibe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ou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4). *Prospects of Korean future*

- society*. Sejong: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ieren, D., Vaines, E., & Badir, D. (1984). *The home economist as a helping professional*. Winnipeg, MN: Frye Publishing.
- Kim, J. H. (1996).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Habermas's thoughts. In C. I. Jang (Ed.), *Habermas's thoughts*. Seoul: Nanam Publishing.
- Kwon, Y. H. (1996). Social philosophy and reality. *Cheolhak*, 49, 349-374.
- Kuhn, T. S. (1996).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3r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K. H., Kwak, Y. S., Lee, S. M., & Choi, J. S. (2012). Design of the competencies-ba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future society.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 Evaluation Research Report CRC RRC 2012-4*.
- Mathieu, D. (1996). Law in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n D. Mathieu (Ed.), *Habermas, modernity and law* (pp. 1-20). London: Sage Publications.
- McGregor, S. L. T. (2004). Using transformative leadership and critical science in public policy. In C. Anderson (Ed.), *Family and community policy* (pp. 157-168, Appendix). Alexandria, VA: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 McGregor, S. L. T. (2012). Bring a life-centric perspective to influential megatrends. In D. Pendergast, S. L. T. McGregor, & K. Turkki (Eds.), *Creating home economics futures*. Bowen Hills: Australian Academic Press.
- McGregor, S. L. T., Pendergast, D., Seniuk, E., Eghan, F., & Engberg, L. (2008). Choosing our future: ideologies matter in the home economics prof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ome Economics*, 1(1), 43-62.
- Park, Y. S., Park, K. J., Kim, J. H., Kim, S. K., & Kim, K. S. (2007). *A study on the future prediction of Korean society and the strategies of educa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Pendergast, D. (2015). HELM-home economics literacy model: A vision for the field. *Victorian of Home Economics*, 54(1), 2-6.
- Pendergast, D., McGregor, S. L. T., & Turkki, K. (2012). Creating Home Economics futures: The next 100 years. In D. Pendergast, S. L. T. McGregor, & K. Turkki (Eds.), *Creating Home Economics Futures*. Bowen Hills: Australian Academic Press.
- Roderick, R. (1996). *Habermas and the foundation of critical theory*. (M. J. Kim, Trans.). Seoul: Tamgud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86).
- Sarker, P., Keya, M., & Panday, P. (2006). Perceived stress in kinship network system among the people of Bangladesh. *Journal of Societal & Social Policy*, 5(2), 1-11.
- Schubert, W. H. (1986). *Curriculum: perspective, paradigm, and possibilit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Stage, S. & Vincenti, V. B. (Eds.). (1997) *Rethinking home economics. Women and the history of the profess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United Nations HABITAT (2008). *State of the world's cities 2008/2009: Harmonious cities*. London: Earthscan.
- Yoo, T. M. (1992).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urriculum: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a philosophy of home economics for envisioning the futur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Proceedings of the 1992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1, 43-59.
- Yoo, T. M. (2001).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building and maintaining of social support system for the future of women and families. *Proceedings of the 2001 October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Conference*. 1, 56-61.
- Yoo, T. M. (2006). The nature of practical problem focused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4), 193-206.
- Yoo, T. & Lee, S. H. (2014). A critical review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based on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5(1), 23-37. doi:10.6115/ijhe.2014.15.1.0
- Vincenti, V. B. (2016).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2016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 Association Conference*, 13-20.

Watters, M. E. (1981). *Family and self-formation: A qualitative*

analysis drawing from the critical theory of Jurgen Haberm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래 사회에 대한 조망하는 관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정교육학의 방향을 비판과학 관점에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Habermas의 비판이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가정교육학이 비판이론에 기초한 비판과학 관점을 취했을 때 어떤 장에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천을 하여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방향성은 개인, 가족과 사회가 상호호혜적이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속해가는 것을 비판이론에 기초하여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 생활세계의 공적 영역과 체계의 영역에서 탐색하였다. 비판과학 관점에서 가정교육학의 실천은 IFHE의 옹호활동과 정책참여 활동의 사례를 통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비판과학으로서의 가정교육학이 가정생활의 비판적, 참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생활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경제체계를 바람직한 조건으로 형성해 나가고 학문적 영역, 일상생활의 영역, 사회적 영역에서 전문활동을 실천해나가야 할 당위성을 지지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9년 3월 7일, 논문심사일자: 2019년 3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3월 28일